2026.11.01.	모든 성인 대축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7번>	<폴더 11번>	<폴더 28번>	<폴더 15번>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순례자의 노래	구원자 예수	꽃

제 1독서 | 요한묵시록 7,2-4. 9-14

화답송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독서 | 요한 1서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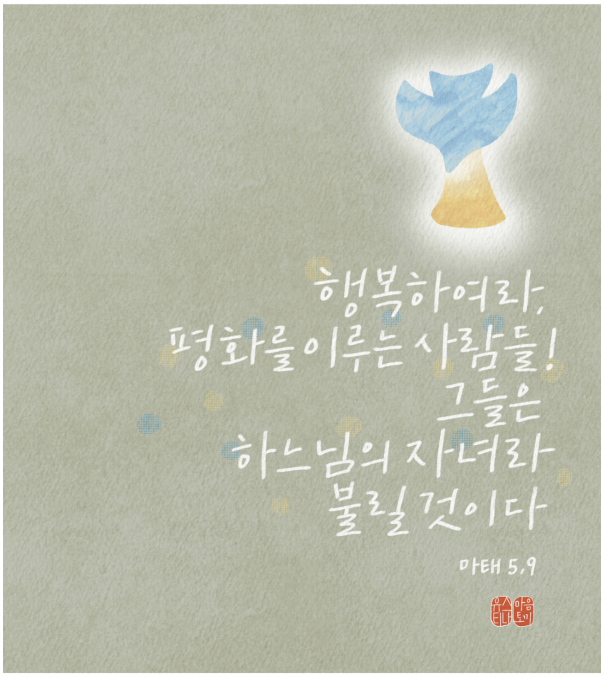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5,1-12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4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9 그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11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12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13 그때에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14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제 2독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항.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찬가 (A Canticle of Love) - 성녀 소화데레사 자서전 중

원장수녀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언제나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내적 투쟁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묵상 시간에 한 수녀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묵주를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물건을 건드리면서 끊임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난히 청각이 예민했기 때문에 저만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게 얼마나 큰 인내를 요구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 소리를 내는 수녀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소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의 묵상은 그저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적어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를 견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그 불쾌한 작은 소리에서 실제로 기쁨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묵상은 – 그것은 고요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 그 음악을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던 수녀님이 손수건을 빨면서 몇 번이고 더러운 물을 제게 튀겼습니다.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서 얼굴을 닦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녀님에게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하느님께서 그토록 너그럽게 제게 주시는 보화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불쾌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더러운 물이 쏟아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분이 지나자 저는 이처럼 색다른 방식으로 물을 뿌림받는 일에 상당한 애착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화가 아낌없이 주어지는 행복한 자리에 가능한 한 자주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녀님, 보시다시피 **저는 우리 주님께 아주 작은 것들밖에 봉헌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영혼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처럼 작은 희생의 기회를 자주 놓치곤 합니다. 그런 희생들은 제게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주는 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평화를 잃어버린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 깨어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감미롭고 수월한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바라던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제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략)

저는 부나 영광을 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의 영광조차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저의 형제들인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저 자신의 영광은 어머니이신 교회의 여왕다운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위대한 일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형제 자매들이 저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으니, 저는 작은 아이로서 왕좌 가까이에 머물며, 싸움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제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꽃을 흩뿌릴 것입니다. 그 꽃향기로 하느님의 옥좌를 감싸고, 은빛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이시여! 저의 짧은 생애는 이렇게 당신 앞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10> 영적 독서 온라인 모임 안내

이번 독서 모임에서는 **'기도에 관한 영적 도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책을 따로 읽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시작일: 11월 10일 (화), 저녁 7시**

2. 11월 식사 및 간식 나눔 안내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식사 나눔 준비 및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1월 15일: 간식 나눔

3. 11월 사목회의 안내

11월 8일 -미사 후 교육관에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4. 2027년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2027)

캔버라 대교구에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순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순례단을 인솔하시며, CACGEL (Catholic Education Canberra & Goulburn)이 순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본당의 청년 (19-35세)들을 대상으로 순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총 1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예상 비용은 약 AUD 8,0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본당에 배포된 안내 전단지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 의사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순례에 관한 전체 세부 사항이 발표되면, 보증금 납부를 포함한 정식 등록 절차가 추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11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박주현 타대오 (10.28)
- 이효령 에멜린 (10.27)
- 고해인 제노비아 (10.30)
- 남궁영근 레오 (11.10)
- 박유비 유비 (11.22)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부의 올바른 사용>

우리가 이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를 올바로 사용하여, 언제나 공동선에 봉사하며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24일 ~ 10월 30일)

봉헌금	$ 403		감사헌금 $100	
교무금	$ 558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허준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11월 공동체 실천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